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공존은 가능한가

- 국내체류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 숙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정영희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젠더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목차

1. 들어가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소통 문제
 2. 글로벌 팬데믹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기존 논의
 - 2-1. 팬데믹 상황에서의 혐오에 대한 연구 현황
 - 2-2. 한국에서 '유학생'의 의미(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
 3. 연구방법: 당사자 인터뷰
 4. 한국에서의 글로벌 팬데믹 경험
 - 4-1. 팬데믹 상황에서 유학생 삶의 변화
 - 4-2. 이방인 차별/혐오 경험
 - 4-3. 팬데믹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4-4. 미디어(재현)에 대한 의견
 - 4-5. 개선점 제안. 바램들
 5. 중간 정리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소통 문제

-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 국내외 집단간 혐오**

- 해외 한국 유학생 등의 입국 제한 논쟁, 중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청원 60만 명 이상 동의. 중국에 대한 가짜뉴스,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배제현상을 표현하는 '치노포비아'라는 신조어 등장 등

-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우호적 콘텐츠**

-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미국반응! 미국인이 본 한국 대응은 레전드?](#) (46만)
- [지금 코로나 외국인 격리시설에 있습니다...](#) (193만)
- ['코로나19 대응 한국이 본보기' 영국 기자가 직접 알려주는 외신 반응](#) (43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눈에 비친 한국 코로나19 대응 feat.#이태원클라쓰 토니](#) (43만)
- [타일러가 말하는 한국의 코로나 19대응 Americans in South Korea talk about Coronavirus \(자막 지원 Eng / Kor Sub titles\)](#) (62만)

- 글로벌 공동체 구성원;세계 시민(Nussbaum,2010)의 공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고 있는 글로벌 소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관심이 필요함.
- 국가/문화간 관계에서 직간접적 여론을 형성하는 유학생들의 팬데믹 경험에 주목함.

2. 글로벌 팬데믹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기존 논의

2-1. 팬데믹 상황에서의 혐오에 대한 연구 현황

- COVID 19의 확산과 혐오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연구 필요성 인식
- 시의성있는 주제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방역 가운데 혐오 문제를 우려하고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논의들
 - 공포감으로 위기에 처한 인간의 어두운 본성으로 혐오와 공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최진홍, 2020)
 - 혐오는 방역이나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효과(장일호, 한채윤, 2020)
 - 인권이 간과되는 방역 및 이기적인 국수주의에 대한 경계 (이용률,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소통의 재편에 대비할 방법의 모색 필요성 강조
- “혐오의 사고 내용은 전염에 대한 신비적 생각과 순수성·불멸성·비동물성 - 우리가 아는 인간 삶의 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 에 대한 불가능한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비합리적이다” (Nussbaum, 2004/2015, 36쪽)

2. 글로벌 팬데믹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기존 논의

2-2. 한국에서 '유학생'의 의미(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

- **외국인 혐오에 대한 연구와 유학생**

- 외국인 혐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이주 여성들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이뤄져 옴.
- '유학생'은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단기 거주자들과 달리 장기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대학에 등록된 학생으로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음.
- 또한 출신국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거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및 범죄자 등에 대한 편견이 전이되기도 하는 등 한국 내에서 외국인/이방인 혐오 논의에 대한 연구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룹임.
- 타지에서의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미진함 등으로 삶의 다중적인 고충을 겪고 있으나, 학위 취득이나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제도나 사회적 처우에 순응하는 경향도 있음

- **글로벌 소통의 agent**

-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가면 '한국형 엘리트'로 자국 내 친(반)한적 그룹이 되기도 하며, 이를 위해 유학생할 중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자산으로 간주하기도 함.
- 국가 간 소통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실행자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음.

3. 연구방법: 당사자 인터뷰

-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외국인 학생 10인과 인터뷰
 - FGI 와 화상인터뷰,

4. 한국에서의 글로벌 팬데믹 경험

4-1. 팬데믹 상황에서 유학생 삶의 변화

- **타국에서 맞이한 비상 상황, 극도의 불안과 불편함**

- 처음에는 코로나에 감염하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전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걸릴까봐 극도로 불안 속에서 살았다.(6)
- 자국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한국에서의 집 안에서 오래 지내야 하는 생활이 첫 달 동안 정말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집중하고 일하는 동안 많은 불안을 불러 일으켰습니다.(10)

- **언컨택트 수업과 외출 자제 상황의 장기화로 물리적 건물에 대한 회의감**

- 지금 유학생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살면서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되거나 모처럼 한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여행을 못 가게 되거나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해서는 학교에 안 가도 일단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기에 학교 건물 자체의 존재가치를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2)

- **팬데믹 일상화로 인한 유학 생활의 중요한 활동 및 교류 축소에 대한 아쉬움**

- 바이러스가 확산 된 후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만나야 할 때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회의를 예약하게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사적인 교류는 적어졌습니다. (7)
- COVID19가 확산되기 전에 한국에서 문화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COVID19가 확산된 이후로 야외 활동을 줄이게 되었고 일종의 "stay home" 집에 있는 생활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COVID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밖을 나가더라도 불편함을 느낍니다.(8)
- 나는 학생회 일원으로서 조직했던 많은 훌륭한 학생 활동을 취소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의 상호 작용이 훨씬 적은 온라인 수업을 받을뿐만 아니라 대학 MT, 오리엔테이션 디너 및 신입생 파티, 문화적 저녁 식사, 학기 저녁 식사 및 파티와 같은 정말 멋진 행사를 취소해야했습니다. 다른 많은 활동들. 또한, 우리 대학의 대부분의 공개 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때문에 도서관이나 스터디 룸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 가고 싶어했던 대학교의 조용하고 적절한 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기숙사 나 커피숍에서 공부해야합니다. 기숙사 건물과 캠퍼스의 체육관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9)

● ‘마스크’: 제도적 차원의 외국인 배제라는 얇은 막

- 인터뷰 응답자 대부분이 유학생 신분으로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 불가. 공적 마스크를 정가로 구매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없이 출입불가한 상황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 “마스크 구매 불가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 스스로가 외국인이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매우 힘들었고 불안했다” (1)
- COVID 동안 취한 조치에 대해 유학생들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동안, 나는 취해진 조치로 매우 차별적이라고 느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었다. 내가 얻은 유일한 “혜택”은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염병의 첫 3 개월 동안 외국인은 정부 조치와 차별을 받았으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으며, 마스크없이 외부에 있다면 사회적 압력을 느꼈다. 또한 정부 조치는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민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없이 나라를 나가면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한국 도착시 발급되는 48시간 이내의 진단서를 소지해야하는 등. 나의 나라에서 한국으로가는 비행기는 약 40 시간이 걸리므로 인증서를 제공 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이제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엄마가 집에서 코로나로 아프셨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귀국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되지 않는다. (10)

● 당연히 되는 (외국에 다녀온)한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

- 외국에 다녀온 한국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 입국할 때 요구하는 조건들을 동일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한국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당신이 그들로부터 외국인을 금지한다면 당신은

- **간접적 경험. 잠재적인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 나 자신은 사실 외국인으로서 혐오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다. 오히려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늘 많은 한국인들이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을 주었다. 현재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서 마스크 구입할 때도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현하현하~~ ~~현하현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들은

4. 한국에서의 글로벌 팬데믹 경험

4-3. 팬데믹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의 의료/방역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국과의 비교우위 평가

- 다른 측면에서는(방역, 정보제공, 의료 서비스 등)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고향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귀국 안 하는 것은 가장 잘 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5)
- Korea의 상황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보다 낫습니다.(7)
- 우리 나라(벨라루스)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보의 투명성. 확진자에 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나와서 이동경로가 겹치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안심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5)

● 한국에서의 유학생들에 대한 낙관적 전망

- 전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변함을 피할 수 없겠지만 다음 학기부터 대면 수업도 하고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5)
- 한국 정부가 COVID19와 싸우고 나 등 국민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로받은 꾸준한 메시지는 확인 된 모든 환자의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하고 더주의를 기울일 수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많은 상점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가 COVID19 시대를 극복 할 때, 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사회적 거리가 우리가 인간 관계의 가치를 더 잘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재해나 위기와 마찬가지로 COVID19 전염병은 우리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2015 년 메르 스 발병으로 한국이 더욱 강력 해졌고 전염병 퇴치를 위해 입법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 것처럼,이 COVID19 경험은 한국과 다른 국가의 확산에 더 잘 대비할 수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래의 질병은 또한 우리 모두가 건강에 더욱주의를 기울이고 집단 복지와 안전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더 잘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9)

● 자국과의 외교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의 경험

- 6/1부터 진행되는 외국인입국에 강화된 제도에는 외국적동포가 우대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른바 (한국인이) “우리민족”이라서 그런가생각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지원금은 못 받았을까, 한국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어 보입니다. (알맞은 표현이 잘 몰라서 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2)
- 외국인 입국제한으로 인해 일본에 오고 가기가 힘들고 외국에서 산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자국이 아니면 타국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6)

4. 한국에서의 글로벌 팬데믹 경험

4-4. 미디어(재현)에 대한 의견

● 한국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원이었던 외국인/자국민 유튜브

- 자국에서 한국 방역에 대한 자국민들의 유튜브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유용한 정보로 이용했다고 생각함(4, 9)
- 내가 들었던 대부분의 뉴스는, 그들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COVID19와 협력하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보다 의식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했다고 생각합니다.(9)
- YouTube에서 covid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관련 내용을 볼 때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심각 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스크 사용, 공황 구매가 아닌 손 소독제 사용 가능성 등).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권고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covid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10)

● 한국 정부의 (자국 정부와 비교할 때 더욱)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

- 한국 체류 중인 유튜버 일본인들의 유튜브내용을 보니 핸드폰 긴급재난속보(코로나) 문자시스템이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문자를 보면 볼수록 조심해야겠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얘기에 저도 동감하였고 저의 의견을 더 추가하자면 개인정보누출로 대한 개인적인 심리적 부담이 느껴져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많이 본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한 가짜 뉴스들은 수시로 생성되어 있어 한국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정보제공 및 공개는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맞는 정보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6)

● 언론과 뉴스는 원래 왜곡되는 것으로 인식. 단순 정보만 신뢰

- “ 이미 중국인에 대한 왜곡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미디어는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는 습관적으로, 아예 접하지 않으려 하며, 그럴 생각도 없다.중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를 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원래 언론들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거짓으로도 쓰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한다”(4)
- 한국 미디어가 공중 보건을 우선 순위로 두지 않고 선정적인 것은 매우 싫다. 이태원 사건/동성애자 클럽 밝힌 것. 외국인 사례 보도 등에서.(10)
- 어느 뉴스 든 가짜 뉴스가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6)
- 나는 사람들이 다른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SNS 그룹 채팅 (Kakao, watsoff 플랫폼)을 통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covid-19의 상황에 대한 뉴스를 듣는다. 나는 거대 언론사의 뉴스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고도로 정치화되었고 대신에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퍼뜨립니다.(7)

4. 한국에서의 글로벌 팬데믹 경험

4-5. 개선점 제안. 바램들

● 제도와 시스템에서의 기술적 개선

- 마스크5부제가 진행된 지 얼마 안되었던 무렵은 건강보험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여 유학생들은 구할 수 없었고,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만 대상이었고, 결혼이민이나 영주권 자격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왜 외국적동포는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2)
- 재입국 심사에서의 불합리함 개선 필요함(전체적)
- 디지털발달로 코로나 대응방식과 국민들의 협조는 좋으나 감염된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집단에 의한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6)

● 외국인 유학생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실행 필요

- 국가별 이동 시간, 거리가 다르며 한국 내에서의 입장이 모두 다름. 비상시에 모든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차별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지점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세계 시민(글로벌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에 대한 성찰적 태도 필요

- 온라인 강의 및 화상 회의 / 미팅은 미래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안에서도 인종 차별 금지, 기숙사에 액세스하기 전에 더 많은 교육해야 한다. (7)
- 한국에서 공동체를 느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이다. 그 중 한국인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다. 아주 가까운 지인들은 제외하면, 공동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3)
-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인들이 마스크 등을 빌미로 예배 등에 억지로 혹은 정보를 주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끌고 가는 경험은 불쾌하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3)

5. 중간 정리

- 2차 인터뷰 예정: 인터뷰 방식 조정
-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 강화 필요
- COVID 19 와 혐오에 관해 발표되고 있는 이론적 논의들 보완 검토 등

참고문헌

Nussbaum, M. (2015).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_____, M. (2010). <Not for Profit>. Princeton univ. Press.

최진홍(2020). 팬데믹, 인간의 어두운 본성 들추다 : 혐오와 공포... 외면과 고립. 이코노믹리뷰

장일호, 한채윤(2020). 혐오가 퍼지면 코로나19도 번진다. 참언론

이재갑, 이용률(2020) 코로나19와 인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통권126

김수은(2019). 한국형 엘리트의 탄생 : 동남아시아인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의 유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몽흐온드랄(2016), "몽골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지선·천지은(2017),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음주습관 간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33(4): 97-120.

서한나(2009), "아시아권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 민족적 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희(2013), "중국유학생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그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윤희·이정은(2016), "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2(1): 91-115.

NGUYEN THI HA MAI(2018), "베트남인 유학생의 이중언어 교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THANK YOU